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전주에서 프랑스문화 즐겨요

다음 달 6일~15일까지 프랑스위크 행사 진행

유럽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고품격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다양한 프랑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주 프랑스위크(French Week)' 행사를 주최한다.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이번 행사는 자수공예와 사진, 와인, 음악, 교육 등 다양

한 분야의 문화교류행사로 구성, 프랑스문화를 한국문화의 수도인 전주에서 홍보하는 동시에 한식과 자수 등 대한민국 문화특색이 전주의 문화가 한국문화를 대표해 선을 보이게 된다.

이번 '전주 프랑스위크' 행사는 다음 달 6일 오후 3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에티엔 퐁랑 피에그 주한프랑스대사관 부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시작으로 자수소품전과 사진전, 와인강연, 음악회, 초청 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일부터 행사기간 내내 한국전통 문화전당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자수교류전인 '생활 속의 자수소품전'이 열린다. 또, 여명카메라박물관은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한국전쟁 당시

UN프랑스대대의 모습이 담긴 사진전 시전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쟁 UN프랑스대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내달 11일 국제한식조리 학교에서는 프랑스 유명 소믈리에이자 와인딜러인 장폴 보레즈를 강사로 초청, 와인강연인 '봄, 프랑스와인' 전주한식을 탐하다가 열린다. 이 와인강연에서는 다양한 프랑스 와인과 더불어 임채홍 교수 일행이 준비한 전주의 다양하고 색다른 카페일푸드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오는 5월 12일에는 이번 행사 하이라이트인 프랑스 베르사유의 CMBV(베르사유 바로크음악센터)의 내한공연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정통 바로

크음악의 산실인 CMBV가 야심차게 준비한 '샤르팡티에의 신성한 이야기'를 주제로 프랑스 전통음악의 정수를 펼쳐낸다.

끝으로 13일에는 혁신도시내에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유명방송인이지 현재 숙명여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도시씨를 초청, '프랑스 동화여행, 감성교육' 특강이 열린다.

민선5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공연은 단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을 떠나 시민들에게 고품격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전주를 한국문화의 중심도시로 프랑스로부터 여가를 나란히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공사장 금품 훔친 노숙인 구속

공사장에서 금품을 훔쳐 생활한 3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25일 공사장에서 삼승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고창군 무장면 공사현장에 침입해 차량과 숙소에 있는 현금과 옷, 간식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3년부터 인근 야산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조씨는 공사장에서 현금과 생활품 등을 훔쳐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진수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25일 낮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범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1%)보다 3배 이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349%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세계노동절기념 전북조직위 출범

25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제126주년 세계노동절기념 전북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권리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조선족 검거

익산경찰서는 25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혐의(사기)로 조선족 A(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20분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B(60)씨에게 전화를 걸어 "봉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적금을 해약하면 손해를 보니 적금

을 담보로 2600만원을 대출을 받아오라"고 속여 B씨의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A씨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은 B씨가 적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달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조선족 A씨는 지난 3월 중국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

입국, 익산에 들어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적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고, 적금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 점을 볼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통장 조회 전문가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 처리시설 점검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구)는 지난 22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광역매립장,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특위는 전주시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서류 검토 등 총 10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6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활동을 벌였다.

특위에는 리사이클링타운 진입로 변경을 비롯해 공사기간 연장의 이유와 대형폐기물 처리 방안 및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도마에 올랐다.

전주시 현안 문제로 떠오른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또 전주시의 철저한 공사감독을 주문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사항에 따른 협약서 작성과 주민지원기금 집행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마을 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함께 파악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축제 맞춤형 교통대책 추진

25일부터 임시주차장 확보·셔틀버스 운행

전주시가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 등 대규모 축제와 각종 행사를 앞두고 25일부터 2주간을 교통비상 주간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 K-리그 전북현대 홈경기, 어린이날, 투깝다제 등 전주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대비해 맞춤형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교통비상 주간 동안 시민들과 관광객 등이 교통정체 및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행사별로 임시주차장 확보와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교통지도요원 배치 등으로 행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시는 전주국제영화제 주요행사가 집중되는 옥토CGV주차장을 중심으로 인근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총 2350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99명의 인력을 배치해 교통정체 및 관광객 안전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 영화제는 영화의거리에서 행사가 집중되는 만큼 영화의거리 일구에서 옥토CGV주차장까지는 차량통행이 전면통제되고, 메가박스주차장에서 옥토CGV주차장 후면까지는 부분통제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내달 2일부터 서부신시가지 등 5곳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4곳과 노송천 공영주차장 등 5곳이 유료로 전환된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해왔던 서부신시가지 상업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등 5개소를 다음달 2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료화 전환은 장기주차 등의 폐단을 없애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혼잡지역내의 차량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유료 전환대상 공영주차장은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내 KB은행 인근 70면, 다은병원 인근 59면, 농협중앙회 인근 55면, 도청 인근 44면과 노송천 68면 등 총236면이다.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유료로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전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상업지역 요금이 적용돼 최초 30분에 600원이 부과되며, 15분 초과 시

마다 300원씩 가산돼 1일 최고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차요금은 주차장내에 설치된 무인정산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현금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차관계 센터를 호출해 납부계좌를 안내 받은 뒤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시는 유료화 전환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료화 안내 현수막과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1일까지는 무인시스템 등을 시범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료화가 처음 시행되는 5월 한 달간은 주차장별로 안내요원을 배치해 무인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천년을 숨 쉬는 전주한지

전주한지는 만지면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다
전주한지는 통기성이 좋다
전주한지는 보온성이 좋다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

한지 수의, 남궁림 한지백지, 장판 수제한지다순지, 색한지, 공예용지, 예술지, 예단지, 응용한지인견한지, 대례지, 환희지, 순수운용지, 이토피피부염,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한지비누, 닥보말떡 각종 한지사 제품 넥타이, 양말, 지갑, 손수건, 러너 등

전노백 지천년(絹五百紙千年)이라는 말처럼 한지는 질기다

전주한지는 만지면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다

전주한지는 통기성이 좋다

전주한지는 보온성이 좋다

전주시
http://www.jeonju.go.kr